

집단따돌림 참여자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 가족 · 학교 관련변인

이 승 출(경희대 박사과정) · 유 계 숙(경희대 교수)

최근 연이은 중학생의 집단따돌림과 그로 인한 피해학생의 자살 관련사건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과 안타까움에 빠져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해자, 동조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 등 집단따돌림 상황의 다양한 참여자 역할을 어느 정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 가족 · 학교 관련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집단따돌림과 관련한 정책적 기초자료 및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시 소재 6개 중학교의 2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511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측정도구는 Salmivalli와 Voeten(2004)의 PRQ(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를 통하여 집단따돌림 참여자 역할 수준을 측정하였고, 가족 관련변인은 가족갈등 · 적대감 척도, 부모감독 척도, 자녀의 비공격적 해결에 대한 부모의 지지척도를, 그리고 학교 관련변인 측정은 학교 분위기 척도, 교사에 대한 애착 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이밖에 중학생의 성별, 연령, 학업성적, 소속된 학급의 구성(남학급, 여학급, 남녀합반), 주관적 가족의 생활수준, 평일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충분함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남학생과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 가족갈등 및 적대감이 높고, 남학급에 소속한 학생은 상대적으로 가해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조자 역할은 역시 남학생과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동조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학생 또는 가정에서 부모의 감독수준이 낮은 학생,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은 강화자 역할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친구와 싸울 경우, 자녀의 비공격적 해결을 부모가 지지해주고, 교사에 대한 애착이 높은 학생은 집단따돌림 상황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어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그리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집단따돌림을 방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해자처벌이나 피해자보상과 같은 사후대책과 이분법적 해결구도, CCTV, 스쿨폴리스 등의 감시적 해결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각 참여자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 가족 · 학교의 특성을 진단하고, 가해자 · 동조자 · 강화자 · 방관자 역할은 예방하고, 방어자 역할은 촉진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과 학교, 사회가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상호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전환교육이 필요하다.